

울산의 과거와 현재

From the Ancient to Today
:The Rise and Development of Ulsan

양상현 / 울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by Yang Sang-Hyun

1. 전통시대의 울산

울산에 남아 있는 빗살무늬토기 등의 유물과 암각화 등의 유적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¹⁾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울산에는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고, 언양면과 두동면에 산재하는 고인돌로 보아 권력출현과 초기국가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우시산국, 거지화국, 호로국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²⁾

삼국시대 울산은 경주의 외항(外港)으로 기능하면서, 신라의 대외접촉 창구와 수도 방어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울포, 사포, 개운포는 대외접촉 창구였고, 관문성, 범서산성, 대운산성 등은 방어기지였다. 더욱이 석서 집단의 등장과도 관련이 깊은³⁾ 농소지역의 달천 철광산은 이 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경주 불교의 영향으로 울산에는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고, 불교문화가 전파되었다. 동축사, 태화사, 망해사, 영축사는 울산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들이다.

통일신라시대까지 몇 개의 군과 현으로 분리되어 있던 울산은 고려 태조 때 흥려부(興麗府)라는 독자적 행정단위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당시 울산 호족 박윤용이 왕건을 도와 고려를 일으킨 것과 관련이 깊다.⁴⁾ 고려시대 울산은 동해안을 통하여 침입하는 왜구 등 해적

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울산에는 경상좌병영이 설치되고, 한때는 경상좌수영까지 설치되면서 동부 영남 방어의 중핵으로 기능하였다.⁵⁾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 지역에서 전개된 관군, 의병, 일본군 사이의 공방전은 군사기지로서의 울산의 중요성과 관련이 깊다.⁶⁾ 병영성, 개운포성, 학성, 서생성 등은 그 대표적인 군사 유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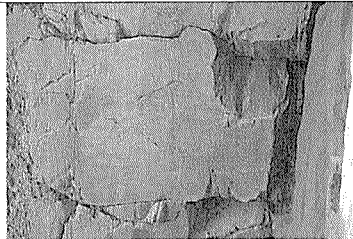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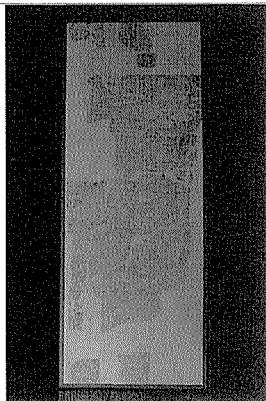
19세기 울산의 인구는 32,376명이었다.⁷⁾ 당시 울산에서도 중세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⁸⁾ 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1862년(철종 13) 민란은 좌병영이 운영하는 환곡 폐단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병사 정주응의 무력진압으로 좌절되었다.⁹⁾ 1879년(고종 16) 민란은 아전이 공금을 유용하고는 이를 농민에게 부담지운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으나, 좌병사의 설득으로 해산하고 문제가 된 아전과 민란 주모자 처형으로 끝났다.¹⁰⁾

1985년의 군사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좌병영은 해체되고 그 후 진위대가 설치되었으며¹¹⁾, 울산부는 울산군으로 위상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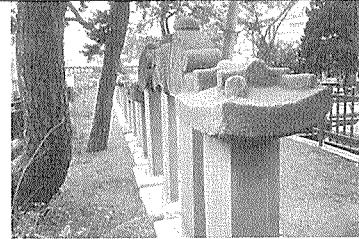
2. 일제시대의 울산

1916년 말 울산에서는 2,593명의 일본인을 포함하여 124,343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직업은 대다수가 농업이었고, 다음은 상업, 어업의 순서였다.¹²⁾ 특히 장

1) 문명대, 1973 「울산의 선사시대 암벽각화」, 『문화재』 제7호16, 33-40쪽
2) 전호태, 1997 「울산 유적 유물의 특성과 시립박물관의 성격」, 『울산의 고대문화』, 처용기획, 51-52쪽.
3) 선석열, 1997 「고대의 울산과 신라 석서 왕실」, 『울산의 고대문화』, 처용기획.
4) 구산우, 1992 「울산 농민항쟁의 고찰」, 『한국문화연구』 5(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48쪽
5) 조선왕조실록에는 울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좌병영, 좌수영과 관련된 논의가 적지 않는데, 그 내용은 좌병영과 좌수영을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부담 가중이 가중되고, 방어에도 문제가 많으니 좌수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고(이는 실행에 옮겨져 1592년에 좌수영은 동래로 이전하였다), 임포 왜관 설치와 관련하여 좌병영의 이전과 관련한 논의도 여러 번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6) 최효식, 1993 「정유재란 중 울산혈전」, 『소현남도영박사고회기념역사학논총』, 349-404쪽
7) 『경상도읍지』, 울산.
8) 신분제의 변화와 관련한 조선 후기 울산지역의 중세사회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광규, 1984 「조선조 후기의 사회구조와 변동 : 울산지역 효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09-165쪽
9) 강원한국사연구소 19세기 농민항쟁부과, 1988 「1862년 농민항쟁」.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602쪽, '울산민란' 항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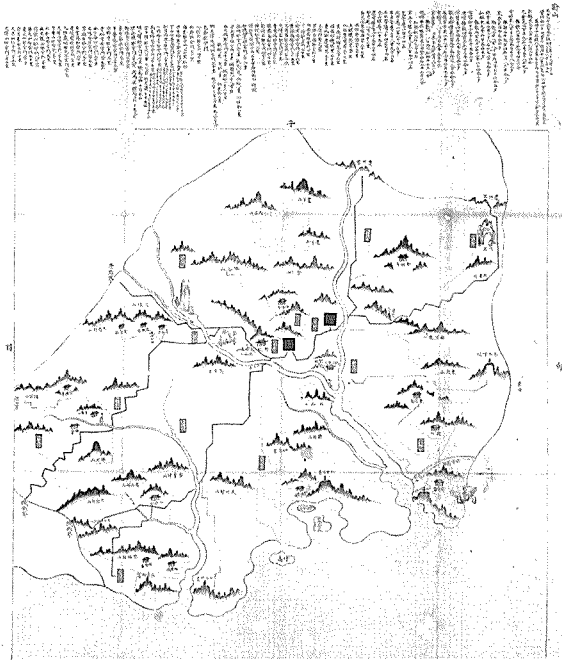


가까이서 본 암각화



경상좌병영에 있던 선정비들, 병영1동 사무소 (사진 함삼건)

빈구대 암각화 탁본. 위치: 울산대학교 교수휴게실 내



蔚山地圖 18세기 중엽 嶺南地圖 帖.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조선시대 지방지도", 43쪽.)

생포를 근거지로 한 포경업은 이 해에도 128두의 고래를 잡아, 153,653엔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었다.¹³⁾

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울산은 조선 후기부터 태화강의 연어 어장을 비롯하여 훌륭한 어장이 발달하고 있었으며, 소금과 미역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¹⁴⁾ 그러나 일본의 어업침탈이 시작되면서 울산어업의 주도권도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장생포항과 방어진항을 거점으로 진행된 어업은 1910년대에 전국 어획량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어업의 주도권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고래잡이의 경우에는 압도적이었다.¹⁵⁾ 당시 일본인은 어업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주요 상권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울산 침략은 민족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3.1운동 시기 울산에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¹⁶⁾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일제 말기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로 이외에 울산과 일본

아미구찌현 유곡(油谷)을 연결하는 제2항로 건설의 일환으로 울산항 축항계획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울산 대도시화 계획이 수립되어¹⁷⁾ 대현면 전역을 울산읍에 합치면서 장생포에는 출장소를 두었고, 울산항과 울산항 사이에 진입 철도가 부설되었다.

한편, 1944년에는 일제가 침략한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하여 석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울산 고사동 일대 15만평에 조선석유주식회사가 건설되었고, 방어진에 대규모 조선소 건설계획이 진행되었다.¹⁸⁾ 또 1941년에는 1928년에 삼산동에 건설한 울산비행장을 군용비행장으로 개조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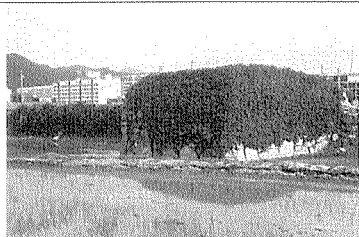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강제 동원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각종 사회간접시설과 공장의 건설도 대륙침략을 위한 식민지 공업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울산 지역의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3) 현재의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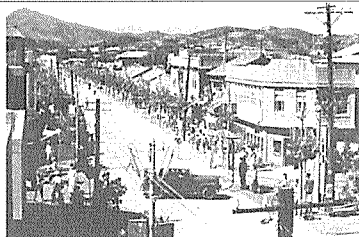
해방 이후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은 울산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울산에서도 1946년 2월 언양면 농민조합 간부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고²⁰⁾, 10월에는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있었다.²¹⁾

1962년 공업화 이전에 울산은 인구 8만 5천명의 중소규모 지방으로 취업인구의 71.4%가 농수산업에 종사하였고, 공업 인구는 4%에 불과하였다. 공장의 숫자도 42개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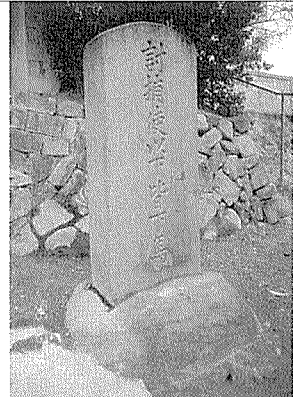
11) 서인환, 1996 『대한제국 군사제도 연구』(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85쪽.
12) 『울산안내』(1917, 울산군), 4-6쪽.
13) 위의 책, 44쪽.
14) 양상현, 1997 『내장원의 해세 관리와 징수』 『대한제국기 내장원 재관리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64쪽, 295쪽 참조.
15) 울산지역의 포경업에 대해서는 이유수, 『울산항토사연구』 197-216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16) 兵營三—祠奉祭會 편, 『병영 3.1운동 역사』 참조.
17) 李清, 『중화학도박』 『정경문화』 1981년 11월호, 145쪽 울산공업단지 입지조사단 안경호의 증언.
18) 『蔚山工業 30年史』(1992, 울산상공회의소), 68-69쪽.
19) 위의 책, 95쪽.
20) 『해방조선』 1(1988, 과학과 사상), 280쪽, 2월 5일자 기록 참조.
21) 실지연, 1991 『대구 10월항쟁연구』 부록 '투쟁일지' 105쪽과 109쪽 참조



언양읍성의 성벽 (사진 한삼권)



'1962년 시승격 당시의 울산시 중심가 (출처: 울산공업 30년사)



경상좌병영의 하마비, 병영초등학교 내 (사진 한삼권)

과하였으며, 업종도 식품 등 소비재 가공공장이 대부분이었다.²²⁾

그후 울산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업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건설부에 울산특별건설국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등급도 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이에 힘입어 농, 어업이 주였던 울산은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비철금속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의 임해 중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울산의 도시 공간구조도 구울산읍과 병영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신정, 아음동의 신시가지, 장생포와 석유화학단지의 공업지대, 기계장치산업의 중심지인 염포, 방어진지구로 변화되어 갔다.²³⁾ 이 사이 울산의 인구도 급증하여 1990년에 69만명에 도달하였다.²⁴⁾ 공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자각도 높아갔고, 노동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계열사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의 발전이 울산 주민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기업이 공해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해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갔고, 급기야는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과 농업과 수산업의 황폐화라는 사태를 야기시켰다.²⁵⁾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함께 금년 들어 인구 100만의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울산공업 30년사』, 263쪽.
23) 『울산공업 30년사』, 119쪽.
24) 『울산공업 30년사』, 103쪽.
2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공해로 찢겨나는 주민들 - 울산, 괴질로 신음하는 주민들 - 온산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51-85쪽, 같은 책, 86-119쪽.

울산 도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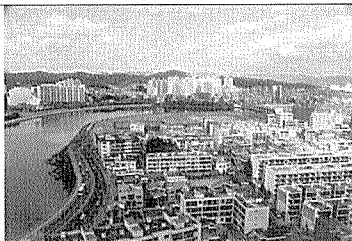
Investigating the City

한삼건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by Han Sam-Gun

울산의 중심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강은 말하자면 울산의 젖줄이다. 이 강의 전체길이는 약 41.5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길이에 비하여 수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70년대 이전, 즉 울산공업단지의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의 태화강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지금은 사라진 모래섬을 경계로 앞강과 뒷강이 나뉘고 그곳에는 은어며 황어, 모치 등이 강물만큼이나 많았다. 맑은 강에는 강조개가 널려 있었고 강가에 늘어진 포플러 숲과 길고 푸른 강둑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었다.

이 태화강에는 용금소 혹은 황룡연이라 불리는 깊은 소가 있다. 태화강 북쪽의 구시가지와 남쪽의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주동맥인 태화교 바로 상류가 이 황룡연이다. 황룡연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위에는 과거 어느 때인가 태화루라는 큰 누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곳을 찾았던 시인 묵객의 시문이 읊지 등에 전한다. 말하자면 이곳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승지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 울산도호부의 사직단이 위치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수 백년간 나라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던 이 곳도 일제시대에 대지가 민간에 불하되고 현재는 국적불명의 건물이 예식장 간판을 달고서 있다. 높은 대 아래에는 청수도 흐르지 않으니 누각도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태화강이 생활하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70년대의 어느 날 우리는 태화강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



현재의 울산 시가지: 태화강과 멀리 고층아파트들이 보인다.



위험받고 있는 태화강변 대나무 숲과 멀리 보이는 고층아파트



울산도호부 동헌의 주거물 (사진 한삼건)